



경기 종합

경기 과열 여부와 경제 정책

경기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과열 여부를 둘러싸고 경기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연초부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 재정경제원 등 정부의 입장도 과열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전국 주요 공단의 조업률·취업률·원자재 수급 등에 대한 점검 작업에 착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기 진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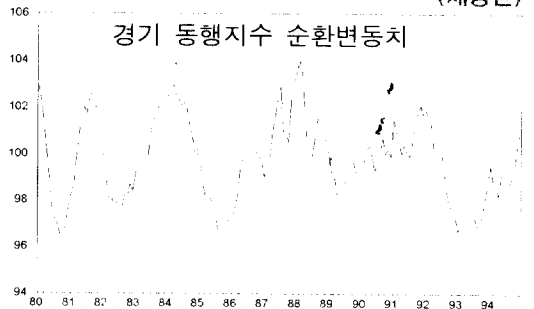
과열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공급측에 애로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제조업 가동률이 지속적인 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94년 12월 현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5.5%로 8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실업률도 94년 12월 현재 2.2%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 나아가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소비 동향도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시각은 지표상의 과열 조짐이 지난 93년에 경제 상황이 극히 저조했던 데 따른 상대적 상승일 뿐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우선 94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8.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6%에 그쳐, 물가가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적인데,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수출 확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이 성장해두는 것이 우리를 위해 좋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지는 등 경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안정화 정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논거로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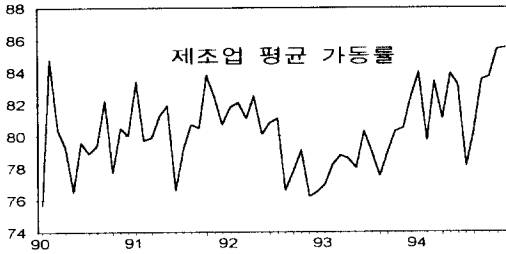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과열 여부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경기는 경기 흐름 자체의 내부적인 힘보다는 외부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하에서는 경기 국면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초점을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보다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창균)



산업 활동

제조업 가동률, 85.5%까지 상승



94년 12월중의 산업 생산은 전년 同월비 12.1%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투자를 반영하는 모든 지표도 전년 同월비

로 국내 기계 수주는 21.6%, 기계류 수입 허가는 72.7%, 기계류 수입은 30.3% 증가하는 등 큰 호조를 보였다.

94년 연간으로도 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국내 기계 수주가 전년비 26.9% 증가하는 등 건축 허가를 제외한 모든 투자 지표가 크게 증가하여, 작년 한 해 설비 투자가 활발했음을 보여주었다.

활발한 산업 활동은 제조업 가동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 94년 12월에는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인 85.5%를 기록하였다.♣

(전민규)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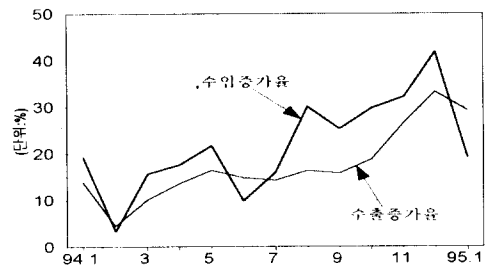
수출입 증가세 지속

연초부터 수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월중 수출과 수입은 전년 同월대비 각각 29.3%와 19.2% 증가한 78.5억 달러, 89.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액은 1월중 규모로는 최대치이며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이후 7 개월만 이었다.

수출은 94년 11월부터 3 개월 동안 연속하여 20% 이상의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 화학 제품의 수출이 각각 53.5%와 70.4%의 증가세를 보여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은 지난해 8월 이후 증가율이 3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 허가(IL) 발급 증가율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50% 이상을 유지하였고 1월에는 77.5%를 기록하여 수입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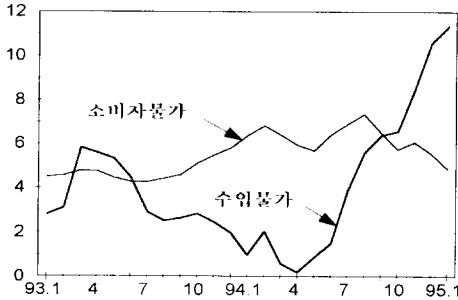
(이보성)



물 가

소비자 물가 안정세 뚜렷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1월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 대비 0.6% 상승하여 89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개인 서비스 요금과 외식비, 학용품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중 분산된 공공 요금, 석유류 가격과 공급이 증가된 채소류·육류 가

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세에 힘입어 1/4분기중 소비자 물가는 연률로 5%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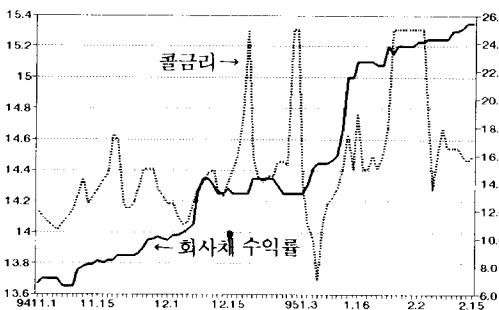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자 및 수입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1월중 수입 물가는, 원화 절상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전년 同월비 14.4% 상승하여, 81년 이후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입 물가 상승세는 성수대교 붕괴후 증가된 물류 비용, 줄줄이 인상 대기중인 각종 버스 요금, 전기 및 상수도 요금, 학교 납입금, 의료보험 수가 등과 함께 2/4분기 이후의 물가 관리에 부담이 될 것이다.♣ (홍순직)

금 리

고금리 지속

(회사채 수익률, %)

(콜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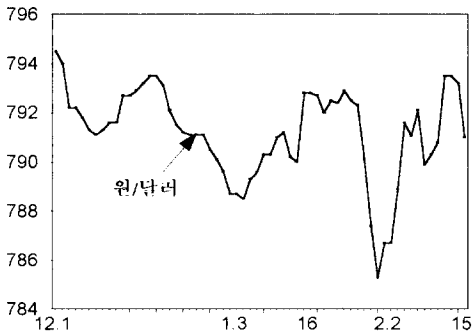


단기 금리인 콜금리는 1월 하순부터 2월초에 걸쳐 25%를 기록했고, 장기 금리인 회사채

수익률도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고금리의 원인은 자금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불안으로 장래 자금 사정을 불투명하게 본 기업들이 사전 자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증대되면서 곧바로 회사채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의 통화 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 상승세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기)

원화 환율

환율 변동폭 커져 환위험 확대



최근 원화 환율은 최저 785 원선에서 최고 793 원선까지 급격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여 시중에 원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수출 네고 물량과 수입 결제에도 원화 가치가 급등락을 한다.

멕시코 사태의 여파로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을 중심으로한 외화 유출입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월간 변동폭은 물론 일일 변동폭도 크게 확대되어 지난 2월 6일까지 원화의 하루 변동폭은 2.1 원으로 작년 평균(0.99)보다 2 배이상 확대되었다.♣

(이준호)

엔화 환율

달러화 향방 전망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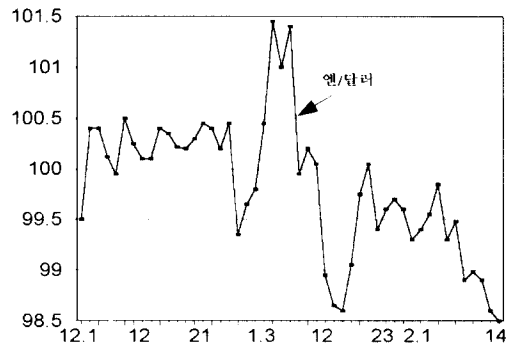
작년말 美聯準의 금리 인상설에 자극을 받아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일본의 지진, 멕시코 사태 등 예상외의 요인으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앞으로도 달러화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여 미국내 채권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전망도 양호하다. 일본의 1월중 무역 흑자폭도 대폭 감소되는 등 달러화 강세 요인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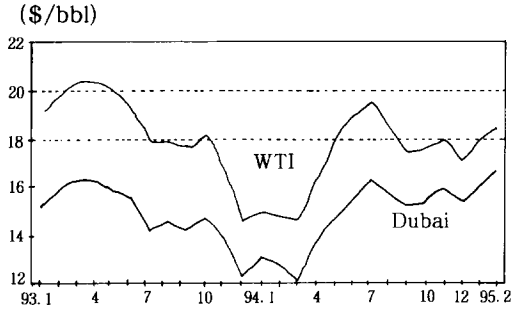
기 하락, 선진 주요국의 금리 상승, 일본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본국 송금 등으로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팽배해 있다.♣

(이준호)



국제 원자재가

원유가, 강보합세 지속



국제 원유가(WTI)는 미국과 유럽의 따뜻한 날씨 지속에도 불구하고, 1월말 이후 상승한 18.4 \$/bbl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서 유럽 지역의 악천후로 인한 생산 차질과 운송 및 선적 지연, 미국의 원유 재

고 감소(1~2월중 6.1%), 일본 고베 지역의 지진 여파 등에 기인하였다.

향후 원유가는 동절기의 기온과 非OPEC의 증산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현재의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해 유전의 정기 보수로 인한 생산 차질과 OPEC의 감산(1월중 24만 bbl/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온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증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정유 공장의 보수, IEA의 상반기 원유 수요 하향 수정 전망, 연말의 쿼터 확대 기대로 인한 OPEC 회원국들의 생산 능력 확충 움직임, 가봉의 OPEC 탈퇴 신청을 계기로 촉발될 회원국들의 결속력 약화도 상승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홍순직)

국제 금리

국제 금리, 소폭 상승

美聯準(FRB)이 2월 1일 인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 94년초 이래 7번째로 정책 금리를 0.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2월초에 약간 상승했다가, 그 후에 발표된 고용 지표, 산업 생산 증가율, 소매 판매고 등이 경제 성장 둔화세를 나타냄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보 금리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 되면서 미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져 하락세를 유지했다.

미국의 중간재·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기 둔화세도 강해서 2월 하순과 3월중 국제 금리는 소

폭 등락을 거듭할 것이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미연준이 금리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 억제정책을 지속할 것이 예상되고 일본의 지진 피해 복구와 개도국의 경기 확장으로 인한 자금 수요 증가로 국제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준)

(%) <국제 금리 변동 추이>

